

Q. 학술대회 개최지까지 국내선이 아닌 육로(기차,택시)로 이동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O"

학술대회 개최지까지 행선지가 확인되는 렌터카를 제외한
육상교통비는 현지교통비 항목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학술대회 전 기간 동안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 학술대회 개최일 기준 -2일에서 종료일 +1일까지의 날짜 기준은 출발지 기준인가요?
(시차가 크고, 거리가 먼 나라의 경우 학회 종료 후 +1일에 출발하면,
도착시에는 +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A. "O"

네, 그렇습니다.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날짜기준으로 합니다.

- Q. ① 참가자 지출내역서에 본인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② 식대에 팁이 필수인 나라에서는 해당 팁도 지원 가능한가요?

A. " ① ② 모두 O "

- ① 개인정보 동의와 이중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 체크와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 ② 식비에 팁도 포함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Q. 참가자가 숙박비 결제 시 조식이 포함되었다고 하나, 인보이스 등 내역에 조식 포함 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조식 포함 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X"



결제하신 금액이 명시된 인보이스나 예약 확인서에 조식 포함 문구가 없다면, 조식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박비 결제 시 조식이 포함되었다는
명시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Q. 학회에서 취합하여 협회에 전달한 증빙자료를 최종본으로 간주하여, 보완 요청이나 재요청없이 정산을 진행할 경우 미비한 항목은 정산 받지 못하는 걸까요?

A. "O"

네, 그렇습니다.

제출한 증빙 자료를 최종본으로 간주하여 보완 요청 없이 진행됩니다.

Q. 요즘 현지에서 우버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우버에서 표기되는 출.도착지가 행선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공정경쟁규약 실무운용지침]

5.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현지 교통비는 공항-호텔 간 왕복 교통비 및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숙소-행사장 간의 교통비(1일 왕복 1회 한정)로 학술대회 기간 내 1인 최대 15만 원까지로서, 이용시간 및 출발지 및 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한다.

A: "?"

우버 이용 시 명시된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만으로는 해당 장소가 학회 장소인지 호텔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 교통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기로라도 이용한 행선지를 추가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